

(가)

생평(生平)에 원하느니 다만 충효(忠孝)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금수(禽獸) | 나 다르리야
마음에 호고져 호야 십재황황(十載惶惶)*호노라

<제1수>

계교(計校)* 이렇더니 공명(功名)이 늦었어라
부급동남(負笈東南)*호야 여공불급(如恐不及)*호는 뜻을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 못 이룰까 호야라

<제2수>

강호(江湖)에 놀자 하니 성주(聖主)를 버리겠고
성주를 섬기자 하니 소락(所樂)에 어긋나네
호은자 기로(岐路)에 서서 갈 테 몰라 호노라

<제4수>

출(出)하면 치군택민(致君澤民) 처(處)하면 조월경운(釣月耕雲)
명철군자(明哲君子)는 이룰사 즐기느니
하물며 부귀(富貴) 위기(危機) | 라 빈천거(貧賤居)를 호호리라

<제8수>

행장유도(行藏有道)*호니 버리면 구태 구호라
산지남(山之南) 수지북(水之北) 병들고 늙은 나를
뉘러서 회보미방(懷寶迷邦)*호니 오라 말라 호노노

<제16수>

성현(聖賢)의 가신 길이 만고(萬古)에 훈가지라
은(隱)커나 현(見)*커나 도(道) | 어찌 다르리
일도(一道) | 오 다르지 아니커니 아무 덴들 어떠리

<제17수>

- 권호문, 「한거십팔곡」 -

- * 십재황황: 급한 마음에 십 년을 허둥지둥함.
- * 계교: 건주어 헤아림.
- * 부급동남: 책을 짊어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함.
- * 여공불급: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듯 함.
- * 행장유도: 쓰이면 세상에 나아가 도(道)를 행하고 버려지면 은둔하는 것을 자신의 상황에 따라 알맞게 함.
- * 회보미방: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서 은둔하는 것은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과 같음.
- * 현: 세상에 나아감.

(나)

진주 장터 생어물전에는
바닷물이 깔리는 해 다 진 어스름을.

울 엄마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빛 발(發)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銀錢)만큼 손 안 닿는 한(恨)이던가
울 엄마야 울 엄마.

별 받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 안 되어
손 시리게 떨던가 손 시리게 떨던가.

진주 남강 맑다 해도
오명 가명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울 엄마의 마음은 어머했을까,
달빛 받은 옹기전의 옹기들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 박재삼, 「추억에서」 -

(다)

시의 원심력을 담당하는 비유와 달리 리듬은 시의 구심력을 담당한다. 글자의 개수이건 음의 보폭이건 동일 요소의 반복은 시에 질서를 부여하고 리듬을 형성한다. 그런데 고전 시가의 리듬에는 외적 규율이 전제되어 있는 반면 현대 시의 리듬은 내적 규범을 창출한다. 가령 시조는 4음보를 기본으로 중장 첫 음보는 3음절을 유지하고, 둘째 음보는 그보다 길게 하는 규율을 따른다. 현대 시에서는 따라야 할 규율이 없는 대신 말소리, 휴지(休止), 고전 시가에 없던 쉼표나 마침표 등 모든 요소들의 책임이 더 커졌다. 이들의 반복은 내적 규범을 형성하여 시의 고유한 의미를 만들어 낸다.

“멀위랑/드래랑/먹고”와 같은 고려 속요의 3음보, “동짓들/기나긴 밤을/한 허리를/버혀 내어”와 같은 시조의 4음보 등 고전 시가의 리듬은 현대에 이르러 해체되었다기보다는 배후로 물러나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어떤 시는 고전 시가의 리듬이 강하게 감지되어 친숙하지만 어떤 시는 리듬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거의 감지되지 않아 낯설다. 우리는 앞의 예를 김소월의 시에서, 뒤의 예를 이상의 시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의 현대 시는 김소월과 이상 사이에서 각각의 좌표를 찍는다.

16.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문형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② 특정 대상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시적 공간의 탈속성이 시상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 ④ 계절적 배경을 소재로 하여 시적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 ⑤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사하여 화자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17.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2수>의 ‘부급동남’은 <제4수>의 ‘성주를 섬기기’ 위해 화자가 행한 일이다.
- ② <제2수>의 ‘공명’을 이루기 위해 화자는 <제17수>의 ‘성현의 가신 길이’를 따르고자 한다.
- ③ <제4수>의 ‘강호’를 화자가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제8수>의 ‘부귀 위기’이다.
- ④ <제4수>의 ‘기로’가 <제17수>의 ‘일도’로 나타난 데에서 화자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제8수>의 ‘빈천거를 호’면서도 화자는 <제17수>의 ‘도’를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8. <보기>를 통해 (가)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조선 시대에 과거 급제는 개인이 입신양명하는 길이자 부모에게 효도하고, 임금을 보필할 수 있는 주된 통로였다. 권호문 역시 이를 위해 과거에 여러 번 응시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모친 사후, “뜻을 얻으면 그 은택을 백성들에게 베풀고, 뜻을 얻지 못하면 자신을 수양한다.”라는 유교적 출처관(出處觀)에 따라 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던 그는 42세 이후 줄곧 조정에 천거되어 정치 현실로 나올 것을 권유받았으나 매번 이를 거절했다. 「한거십팔곡」에는 권호문의 이러한 삶과 생각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① <제1수>의 ‘충효’는 화자가 이루고자 했던 삶의 덕목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제1수>에서 화자가 ‘십재황황’하는 모습은 과거에 여러 차례 응시했으나 급제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제16수>의 ‘행장유도흐니’는 화자가 유교적 출처관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④ <제16수>의 ‘병들고 늙은 나를’은 화자가 정치 현실로 나올 것을 권유를 거절하는 표면적 이유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제16수>의 ‘회보미방’은 조정의 권유에 대한 화자의 답변으로 볼 수 있겠군.

19.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해 다 진 어스름’은 어둠이 깔리는 파장 무렵 ‘생어물전’의 분위기를 보여 주는군.
- ② ‘빛 발하는 눈깔’은 ‘손 안 닿는’ ‘은전’과 연결되어 ‘한’의 정서를 유발하는군.
- ③ ‘손 시리게 떨던가’에서는 추운 밤 ‘별 밭’ 아래의 ‘골방’ 속에서 느꼈던 행복감이 드러나는군.
- ④ ‘진주 남강’은 공간적 구체성을 보여 주는 한편 낮에 강을 보지 못할 정도로 바빠 생계를 꾸려 가던 ‘울 엄마’를 떠올리게 하는군.
- ⑤ ‘글썩이고 반짝이던’은 달빛이 비친 ‘옹기’의 표면과 ‘울 엄마’의 눈물을 함께 환기하는군.

20. (다)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 각 수의 종장 첫째 음보를 3음절로 한 것은 내적 규범을 따른 것이다.
- ② (가)에서 각 수의 종장 둘째 음보의 글자 수가 첫째 음보의 글자 수보다 많은 것은 따라야 하는 규칙을 위반한 것이다.
- ③ (나)에서 ‘울 엄마야 울 엄마’는 울림소리의 반복으로 리듬을 창출하고 화자의 정서를 표출한 것이다.
- ④ (나)에서 ‘오명 가명’은 외적 규율에 따라 ‘ㅇ’을 반복하여 일터의 무료한 삶에 생동감을 불어넣은 예이다.
- ⑤ (나)에서 1연부터 3연까지 쉼표로 연을 마무리한 것은 고전 시가의 리듬을 계승한 예이다.

CDS 프리미엄

#1문단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의 CDS 프리미엄은 우리가 매체에서 자주 접하는 경제 지표의 하나이다.

이 지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신용 위험'과 '신용 파산 스와프(CDS)'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문단

채권은 정부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며 그 가격은 채권이 매매되는 채권 시장에서 결정된다.

채권의 발행자는 정해진 날에 일정한 이자와 원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는 이를 다시 매도하거나 이자를 받아 수익을 얻는다.

그런데 채권 투자에는 발행자의 지급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이자와 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신용 위험이 수반된다.

이에 따라 각국은 채권의 신용 위험을 평가해 신용 등급으로 공시하는 신용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

#3문단

우리나라의 신용 평가 제도에서는 원화로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한 채권 가운데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최상급인 채권에 AAA라는 최고 신용 등급이 부여된다.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부도가 난 채권에는 D라는 최저 신용 등급이 주어진다.

그 외의 채권은 신용 위험이 커지는 순서에 따라 AA, A, BBB, BB 등 점차 낮아지는 등급 범주로 평가된다.

이들 각 등급 범주 내에서도 신용 위험의 상대적인 크고 작음에 따라 각각 '-나 '+'를 붙이거나 하여 각 범주가 세 단계의 신용 등급으로 세분되는 경우가 있다.

채권의 신용 등급은 신용 위험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한 가운데 신용 위험이 커지면 채권 시장에서 해당 채권의 가격이 ⓐ 떨어진다.

#4문단

CDS는 채권 투자자들이 신용 위험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파생 금융 상품이다. CDS 거래는 '보장 매입자'와 '보장 매도자'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보장'이란 신용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뜻한다. 보장 매도자는, 보장 매입자가 보유한 채권에서 부도가 나면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

CDS 거래를 통해 채권의 신용 위험은 보장 매입자로부터 보장 매도자로 이전된다. CDS 거래에서 신용 위험의 이전이 일어나는 대상 자산을 '기초 자산'이라 한다.

가령 은행 ㉠같은, 기업 ㉡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면서 그것의 신용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보험 회사 ㉢명과 CDS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때 기초 자산은 을이 발행한 채권이다.

#5문단

보장 매도자는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보장 매입자로부터 일종의 보험료를 받는데, 이것의 요율이 CDS 프리미엄이다.

CDS 프리미엄은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이나 보장 매도자의 유사시 지급 능력과 같은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다른 요인이 동일한 경우,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이 크면 CDS 프리미엄도 크다.

한편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이 우수할수록 보장 매입자는 유사시 손실을 보다 확실히 보전받을 수 있으므로 보다 큰 CDS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이 있다면, 그 신용 등급으로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을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요인이 동일한 경우,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이 높으면 CDS 프리미엄은 크다.

2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정부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한다.
- ② 채권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커지면 신용 위험은 커진다.
- ③ 신용 평가 제도는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이다.
- ④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 어떤 채권의 신용 등급이 낮아지면 해당 채권의 가격은 하락한다.
- ⑤ 채권 발행자는 일정한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하지만, 채권에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위험이 수반된다.

22. [A]의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기초 자산을 보유하지 않는다.
- ② ㉠은 기초 자산에 부도가 나면 손실을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
- ③ ㉡은 신용 위험을 기피하는 채권 투자자이다.
- ④ ㉢은 신용 위험을 부담하는 보장 매도자이다.
- ⑤ ㉣은 기초 자산에 부도가 나아만 이득을 본다.

23. <보기>의 ㉠~㉣ 중 CDS 프리미엄이 두 번째로 큰 것은?

<보 기>

윗글의 ㉡과 ㉢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CDS 거래 ㉠~㉣를 비교하여 CDS 프리미엄의 크기에 순서를 매길 수 있다. (단, 기초 자산의 발행자와 보장 매도자는 한국 기업이며, ㉠~㉣에서 제시된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

CDS 거래	기초 자산의 신용 등급	보장 매도자 발행 채권의 신용 등급
㉠	BB+	AAA
㉡	BB+	AA-
㉢	BBB-	A-
㉣	BBB-	AA-
㉤	BBB-	A+

- ① ㉠ ② ㉡ ③ ㉢ ④ ㉣ ⑤ ㉤

2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X가 2015년 12월 31일에 이자와 원금의 지급이 완료되는 채권 Bx를 2011년 1월 1일에 발행했다. 발행 즉시 Bx 전량을 매입한 Y는 Bx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CDS 계약을 Z와 체결하고 보장 매입자가 되었다. 계약 체결 당시 Bx의 신용 등급은 A-, Z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은 AAA였다. 2011년 9월 17일, X의 재무 상황 악화로 Bx의 신용 위험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였다. 2012년 12월 30일, X의 지급 능력이 2011년 8월 시점보다 개선되었다. 2013년 9월에는 Z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이 AA+로 변경되었다. 2013년 10월 2일, Bx의 CDS 프리미엄은 100 bp*였다. (단, X, Y, Z는 모두 한국 기업이며 신용 등급은 매월 말일에 변경될 수 있다. 이 CDS 계약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매월 1일에 갱신되며 CDS 프리미엄은 매월 1일에 변경될 수 있다. 제시된 것 외에 다른 요인에는 변화가 없다.)

2011. 1. 1.	2011. 9. 17.	2012. 12. 30.	2013. 9. 30.
CDS 계약	X의 재무 상황 악화	X의 지급 능력 개선	Z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 변경

* bp: 1 bp는 0.01 %와 같음.

- ① 2011년 1월에는 Bx에 대한 CDS 계약으로 X가 신용 위험을 부담하게 되었겠군.
- ② 2011년 11월에는 Bx의 신용 등급이 A-보다 높았겠군.
- ③ 2013년 1월에는 Bx의 신용 위험으로 Z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2011년 10월보다 작아졌겠군.
- ④ 2013년 3월에는 Bx에 대한 CDS 프리미엄이 100 bp보다 작았겠군.
- ⑤ 2013년 4월에는 Bx의 신용 등급이 BB-보다 낮았겠군.

길동이 대희하여 채문 안에 들어가니 비단 병풍을 치고 영웅 호걸 수백이 앉았는지라. ㉠ 그중에 상좌(上座)의 사람을 보니, 청포운삼에 자급관을 쓰고 팔을 가볍게 들며 용력을 자랑하니, 길동이 거만하게 들어가 길게 읊만 하고 절하지 않으며, 좌우 중인을 하찮게 여기고 뒷자리에 앉으니, 청포 입은 사람이 먼저 문왈,

“소년은 어디로 오며, 성명은 뭐라 하느냐?”

길동이 대왈,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요, 서울 장안에 있는 홍 정승의 아들이러니, 들은즉 활빈당에 천하 역사(力士) 모여 용맹을 자랑한다 하기로 내 한번 찾아와 힘을 자랑코자 왔나니, 그대 등은 무슨 재주와 용력이 있으며, 나와 ㉡ 시험할 쏘냐?”

그 사람들이 길동의 말을 듣고 서로 바라볼 뿐 답을 못 하더니, 상석에 앉은 사람이 방목(榜目)을 지어 가지고 쓴 ㉢ 글을 내어 왈,

“그대는 이 세 가지를 행할쏘냐?”

[가]

하거늘 길동이 받아 보니,

“제일은 이 앞에 초부석(樵夫石)이란 돌이 있되 무게 천 근이라, 능히 그 돌을 들면 우리 우두머리를 삼을 것이요, 제이는 무쇠로 철관을 만들었으니 무게 오백 근이라, 그 철을 쓰고 이 앞 돌문 삼백 단을 세웠으니 그 돌문을 뛰어넘으면 가히 그 용맹을 알 것이요, 또한 해인사라 하는 절이 있되 재물이 누거만(累巨萬)이요, 그 절 중의 용맹이 과인하기로 우리 등이 마음대로 못하는 고로, 우두머리에게 지략과 술법을 배우고 이후에 ㉣ 상장군 자리에 모시려 하나이다.”

길동이 한 번 보고 대소 왈,

“이 세 가지를 어렵다 하니, 어찌 가소롭지 아니하리오?”

하고, 모든 역사를 데리고 초부석 있는 곳에 나아가 혼연히 소매를 걷고 그 돌을 잡아 공중에 던지니, 그 돌이 미처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발로 돌을 차니 수십 보 밖에 내려지는지라, 중인이 대경하여 또 돌문 앞에 나아가니, 길동이 또한 ㉤ 철관 오백 근을 쓰고 돌문 삼백 단을 넘어가니, 모든 무리 일시에 고향하여 왈,

“천하장사로다!”

하고 용력을 칭찬하고, 길동을 장군 자리로 모신 후에 여러 도적 천여 명이 일시에 자리 아래 엎드려 군례(軍禮)를 마친 후에 그 용맹을 치하하더라.

(중략)

상이 하교하사 왈,

“경은 자식을 분명히 알지라. 저 많은 길동 중에 경의 자식을 잡아내라.”

하신대, 홍 의정 주왈,

“신의 자식 길동은 왼쪽 다리의 붉은 기미, 용의 비늘 같은 일곱 점이 있사오니, 그를 보면 알리이다.”

상이 그리 여겨,

“빨리 잡아들여 수검(搜檢)하여 보라.”

하신대, 홍 의정이 물러나와 길동을 바라보고 왈,

“내 자식 길동은 빨리 나와 나를 보라.”

한대, 무수한 길동이 홍 의정을 보고 다 나와 절하여 왈,

“부친께선 강녕하시나이까?”

하거늘, 홍 의정 왈,

“내 자식은 왼쪽 다리에 검은 일곱 점이 있으니, 일곱 점 있는 자 길동이라.”

하니, 많은 길동이 홍 의정 말을 듣고 일시에 다리를 걷고 보이니 각각 일곱 점이 있는지라. 홍 의정이 할 수 없어 상께 주왈,

“신의 역자(逆子)를 조사하여 밝힐 수 없사오니, 황공 대죄 하나이다.”

상이 진노하사 길동을 보시고 왈,

“너희 등은 물러가 임의로 하라.”

하시고 금부도사를 명하여 다 물러 보내라 하시니, 모든 길동 등이 나올새 종일토록 나오더니, 그제야 참 길동이 다시 쥬내에 들어가 명을 받들고 절하며 슬피 통곡하여 왈,

“신의 아버 대대로 국을 입었거늘 신이 어찌 나라를 저버리리까? 신의 몸이 천비(賤婢)에서 나와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옵고 형을 형이라 못하여 제 몸이 천대를 받으며, 여의주 없는 용이요 날개 부러진 봉이라, 어찌 장부의 힘을 갖고 속절없이 집안에서만 늪으리까? 그러므로 한번 재주를 시험코자 ㉦ 각 읍 각 관을 치고 군기를 탈취하기는 신의 책략을 자랑함이요, 상의 어위대장 이흠을 속임도 재주를 보임이요, 또 신의 가슴에 경서와 병서와 음양조화며 세상을 다스릴 재주를 지녔사오니 어찌 속절없이 세월만 보내오리까? 복걸 ㉧ 상께서 신에게 병조판서 삼 년만 제수하시면 남의 천대를 면하옵고 충성을 다하여 상을 받들리다.”

상이 길동의 아뢰을 듣고 탄식하여 왈,

“난세의 영웅이로다. 어찌 쓰지 아니 하리오?”

즉시 공부상서를 명해 홍길동에게 병조판서를 제수하니,

㉨ 뒷일은 어찌 된고? 다음 권을 볼지어다.

- 「홍길동전」 -

26.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포 입은 사람’은 길동의 정체를 궁금해한다.
- ② 길동은 활빈당 무리에게 자기를 소개하며 자신감을 드러낸다.
- ③ 홍 의정은 ‘참 길동’을 찾으라는 상의 명령에 유보적 태도를 보인다.
- ④ 무수한 길동이 홍 의정 앞에서 동일한 언행을 보이고 있다.
- ⑤ 상에게 길동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27. [가]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길동이 활빈당 무리와 한편이 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 ② ㉡는 길동에게 활빈당이 세워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 ③ ㉢는 길동이 활빈당에서 ㉤에 제시된 과제를 통과하면 차지할 지위이다.
- ④ ㉠은 길동이 활빈당에서 자아를 실현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와 ㉢는 이를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 ⑤ ㉠은 길동이 활빈당에서 무리들과 갈등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와 ㉢는 이를 심화하는 역할을 한다.

28. <보기>를 참고하여 ㉠~㉤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홍길동전」은 19세기에 오면 특정 대목을 확대·변형한 이본이 여럿 등장한다. 윗글은 이러한 이본 중 하나로, 이전에는 길동이 용력을 과시하는 장면이 바위를 드는 것으로만 제시되었으나 윗글에서는 첩관을 쓰고 돌문을 넘는 장면이 추가되었다. 또한 활빈당의 우두머리가 되는 장면에서는 활빈당을 이끌던 수령을 새롭게 등장시켜 자신의 자리를 길동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흥미를 높였다. 특히 이전에는 왕이 길동을 잡기 위한 계략으로 병조판서를 제수하였지만 윗글에서는 길동이 왕에게 직접 요구하여 원하던 바를 얻는 것으로 변형하였다. 이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신분 상승이 가능하기를 바라던 당대 독자들의 욕망을 작품에 반영한 것이다. 단, 이 과정에서 군신 관계를 바탕으로 한 조선의 유교적 질서에 대한 부정으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한편, 특정 장면에서 서술을 중단한 것은 다음 권을 보게 하려는 소설업자들의 상업적 전략에서 나온 것이다.

- ① ㉠은 추가된 인물을 통해서 작품의 흥미를 높이려는 것이겠군.
- ② ㉡는 길동의 용력을 보여 주는 장면이 더해진 것이겠군.
- ③ ㉢는 군신 관계를 바탕으로 한 유교적 질서를 무너뜨리고자 한 시도이겠군.
- ④ ㉤은 주인공의 신분 상승을 바라는 독자의 욕망이 반영된 것이겠군.
- ⑤ ㉤은 독자들의 궁금증을 유발하여 돈을 벌려는 소설업자의 전략으로 볼 수 있겠군.

STM

#1문단

① 주사 터널링 현미경(STM)에서는 끝이 첨예한 금속 탐침과 도체 또는 반도체 시료 표면 간에 적당한 전압을 걸어 주고 둘 간의 거리를 좁히게 된다.

탐침과 시료의 거리가 매우 가까우면 양자 역학적 터널링 효과에 의해 둘이 접촉하지 않아도 전류가 흐른다.

이때 탐침과 시료 표면 간의 거리가 원자 단위 크기에서 변하더라도 전류의 크기는 민감하게 달라진다.

이 점을 이용하면 시료 표면의 높낮이를 원자 단위에서 측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전류가 흐를 수 없는 시료의 표면 상태는 STM을 이용하여 관찰할 수 없다.

이렇게 민감한 STM도 진공 기술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널리 사용될 수 있었다.

#2문단

STM은 대체로 진공 통 안에 설치되어 사용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기체 분자는 끊임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주변과 충돌한다.

이때 일부 기체 분자들은 관찰하려는 시료의 표면에 붙어 표면과 반응하거나 표면을 덮어 시료 표면의 관찰을 방해한다.

따라서 용이한 관찰을 위해 STM을 활용한 실험에서는 관찰하려고 하는 시료와 기체 분자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할 필요가 있어 진공이 요구되는 것이다.

진공이란 기체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은 상태를 통칭하며 기체 압력이 낮을수록 진공도가 높다고 한다.

진공 통 내부의 온도가 일정하고 한 종류의 기체 분자만 존재할 경우, 기체 분자의 종류와 상관없이 통 내부의 기체 압력은 단위 부피당 떠돌아다니는 기체 분자의 수에 비례한다.

따라서 기체 분자들을 진공 통에서 뽑아내거나 진공 통 내부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하면 진공 통 내부의 기체 압력을 낮출 수 있다.

#3문단

STM을 활용하는 실험에서 어느 정도의 진공도가 요구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분자층 형성 시간'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진공 통 내부에서 떠돌아다니던 기체 분자들이 관찰하려는 시료의 표면에 달라붙어 한 층의 막을 형성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라 한다.

이 시간은 시료의 표면과 충돌한 기체 분자들이 표면에 달라붙을 확률이 클수록, 단위 면적당 기체 분자의 충돌 빈도가 높을수록 짧다.

또한 기체 운동론에 따르면 고정된 온도에서 기체 분자의 질량이 크거나 기체의 압력이 낮을수록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길다.

가령 질소의 경우 20℃, 760토르* 대기압에서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3×10^{-9} 초이지만, 같은 온도에서 압력이 10^{-9} 토르로 낮아지면 대략 2,500초로 증가한다.

* 토르(torr) : 기체 압력의 단위.

이런 이유로 STM에서는 시료의 관찰 가능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통상 10^{-9} 토르 이하의 초고진공이 요구된다.

#4문단

초고진공을 얻기 위해서는 ㉠ 스퍼터 이온 펌프가 널리 쓰인다.

스퍼터 이온 펌프는 진공 통 내부의 기체 분자가 펌프 내부로 유입되도록 진공 통과 연결하여 사용한다.

스퍼터 이온 펌프는 영구 자석, 금속 재질의 속이 뚫린 원통 모양 양극, 타이타늄으로 만든 판 형태의 음극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석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이 원통 모양 양극의 축 방향으로 걸려 있고, 양극과 음극 간에는 2~7kV의 고전압이 걸려 있다.

양극과 음극 간에 걸린 고전압의 영향으로 음극에서 방출된 전자는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 복잡한 형태의 궤적을 그리며 양극으로 이동한다.

이 과정에서 음극에서 방출된 전자는 주변의 기체 분자와 충돌하여 기체 분자를 그것의 구성 요소인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시킨다.

여기서 자기장은 전자가 양극까지 이동하는 거리를 자기장이 없을 때보다 증가시켜 주어 전자와 기체 분자와의 충돌 빈도를 높여 준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 양이온은 전기력에 의해 음극으로 당겨져 음극에 박히게 되어 이동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이 과정이 1차 펌프 작용이다.

또한 양이온이 음극에 충돌하면 타이타늄이 떨어져 나와 충돌 지점 주변에 들러붙는다.

이렇게 들러붙은 타이타늄은 높은 화학 반응성 때문에 여러 기체 분자와 쉽게 반응하여, 떠돌아다니던 기체 분자를 흡착한다.

이는 떠돌아다니는 기체 분자의 수를 줄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2차 펌프 작용이라 부른다. 이렇듯 1, 2차 펌프 작용을 통해 스퍼터 이온 펌프는 초고진공 상태를 만들 수 있다.

29.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대기압보다 진공도가 낮은 상태가 진공이다.
- ② 스퍼터 이온 펌프는 초고진공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 ③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짧을수록 STM을 이용한 관찰이 용이하다.
- ④ 일정한 온도와 부피의 진공 통 안에서 떠돌아다니는 기체 분자의 수는 기체 압력에 반비례한다.
- ⑤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시료 표면과 충돌한 기체 분자들이 표면에 달라붙을 확률과 무관하게 결정된다.

30.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료 표면의 높낮이를 원자 단위까지 측정할 수 없다.
- ② 시료의 전기 전도 여부에 관계없이 시료를 관찰할 수 있다.
- ③ 시료의 관찰 가능 시간을 늘리려면 진공 통 안의 기체 압력을 낮추어야 한다.
- ④ 시료 표면의 관찰을 위해서는 시료 표면에 기체의 단분자층 형성이 필요하다.
- ⑤ 양자 역학적 터널링 효과를 이용하여 탐침을 시료 표면에 접촉시킨 후 흐르는 전류를 측정한다.

31. ㉡의 '음극'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전압과 전자의 상호 작용으로 자기장을 만든다.
- ② 떠돌아다니던 기체 분자를 흡착하는 물질을 내놓는다.
- ③ 기체 분자에서 분리된 양이온을 전기력으로 끌어당긴다.
- ④ 전자와 기체 분자의 충돌로 만들어진 양이온을 고정시킨다.
- ⑤ 기체 분자를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시키는 전자를 방출한다.

32.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STM을 사용하여 규소의 표면을 관찰하는 실험을 하려고 한다. 동일한 사양의 STM이 설치된, 동일한 부피의 진공 통 A~E가 있고, 각 진공 통 내부에 있는 기체 분자의 정보는 다음 표와 같다. 진공 통 A 안의 기체 압력은 10^{-9} 토르이며, 모든 진공 통의 내부 온도는 20°C 이다. (단, 기체 분자가 규소 표면과 충돌하여 달라붙을 확률은 기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정하며, 제시되지 않은 모든 조건은 각 진공 통에서 동일하다. N은 일정한 자연수이다.)

진공 통	기체	분자의 질량 (amu*)	단위 부피당 기체 분자 수 (개/cm ³)
A	질소	28	4N
B	질소	28	2N
C	질소	28	7N
D	산소	32	N
E	이산화 탄소	44	N

* amu : 원자 질량 단위.

- ① A 내부에서의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대략 2,500초이겠군.
- ② B 내부의 기체 압력은 10^{-9} 토르보다 낮겠군.
- ③ C 내부의 진공도는 B 내부의 진공도보다 낮겠군.
- ④ D 내부에서의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A의 경우보다 길겠군.
- ⑤ E 내부의 시료 표면에 대한 단위 면적당 기체 분자의 충돌 빈도는 D의 경우보다 높겠군.

근대 도시의 삶의 양식

#1문단

근대 도시의 삶의 양식은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끌어 왔다. 오랫동안 지배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삶의 양식 중 노동 양식에 주목하는 ㉠ 생산학파의 견해였다.

생산학파는 산업 혁명을 통해 근대 도시 특유의 노동 양식이 형성되는 점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들은 우선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갖춘 근대 생산 체제가 대규모의 노동력을 각지로부터 도시로 끌어 모으는 현상에 주목했다.

또한 다양한 습속을 지닌 사람들이 어떻게 대규모 기계의 리듬에 맞추어 획일적으로 움직이는 노동자가 되는지 탐구했다.

예를 들어, 미셸 푸코는 노동자를 집단 규율에 맞춰 금욕 노동을 하는 유순한 몸으로 만들어 착취하기 위해 어떤 훈육 전략이 동원되었는지 연구하였다.

또한 생산학파는 노동자가 기계화된 노동으로 착취당하는 동안 감각과 감성으로 체험하는 내면세계를 상실하고 사물로 전락했다고 고발하였다.

이렇게 보면 근대 도시는 어떠한 쾌락과 환상도 끼어들지 못하는 거대한 생산 기계인 듯하다.

#2문단

이에 대하여 ㉡ 소비학파는 근대 도시인이 내면세계를 상실한 사물로 전락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생산학파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폴런 캠벨은 금욕주의 정신을 지닌 청교도들조차 소비 양식에서 자기 환상적 쾌락주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결핍을 충족시키려는 욕망과 실제로 욕망이 충족된 상태 사이에는 시간적 간극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근대 도시에서는 이 간극이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욕망이 충족된 미래 상태에 대한 주관적 환상을 자아낸다.

생산학파와 달리 캠벨은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발달 덕분에 이런 환상이 단순한 몽상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현실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킨다고 보았다.

그는 이런 기대가 쾌락을 유발하여 근대 소비 정신을 복돋웠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3문단

근래 들어 노동 양식에 주목한 생산학파와 소비 양식에 주목한 소비학파의 입장을 ㉢ 아우르러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일찍이 근대 도시의 복합적 특성에 주목했던 발터 벤야민은 이러한 연구의 선구자 중 한 명으로 재발견되었다.

그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도입이 노동의 소외를 심화한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하지만 소비 행위의 의미가 자본가에게 이윤을 ㉣ 가져다주는 구매 행위로 축소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소비는 그보다 더 복합적인 체험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벤야민은 이런 사실을 근대 도시에 대한 탐구를 통해 설명한다.

근대 도시에서는 옛것과 새것,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 등 서로 다른 것들이 병치되고 뒤섞이며 빠르게 흘러간다.

환상을 자아내는 다양한 구경거리도 근대 도시 곳곳에 등장했다.

철도 여행은 근대 이전에는 정지된 이미지로 체험되었던 풍경을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파노라마로 체험하게 만들었다.

또한 유리와 철을 사용하여 만든 상품 거리인 아케이드는 안과 밖, 현실과 꿈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체험을 가져다주었다.

벤야민은 이러한 체험이 근대 도시인에게 충격을 가져다준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충격 체험을 통해 새로운 감성과 감각이 일깨워진다고 말했다.

#4문단

벤야민은 근대 도시의 복합적 특성이 영화라는 새로운 예술 형식에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19세기 말에 등장한 신기한 구경거리였던 영화는 벤야민에게 근대 도시의 작동 방식과 리듬에 상응하는 매체다.

영화는 조각난 필름들이 일정한 속도로 흘러가면서 움직임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가 만들어 내는 기계의 리듬을 ㉠ 떠올리게 한다.

또한 관객이 아닌 카메라라는 기계 장치 앞에서 연기를 해야 하는 배우나 자신의 전문 분야에만 참여하는 스태프는 작품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기 어렵다.

분업화로 인해 노동으로부터 소외되는 근대 도시인의 모습이 영화 제작 과정에서도 드러나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영화는 일종의 충격 체험을 통해 근대 도시인에게 새로운 감성과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매체이기도 하다.

예측 불가능한 이미지의 연쇄로 이루어진 영화를 체험하는 것은 이질적인 대상들이 복잡하고 불규칙하게 뒤섞인 근대 도시의 일상 체험과 유사하다.

서로 다른 시·공간의 연결, 카메라가 움직일 때마다 변화하는 시점, 느린 화면과 빠른 화면의 교차 등 영화의 형식 원리는 ㉡ 정신적 충격을 발생시킨다.

영화는 보통 사람의 육안이라는 감각적 지각의 정상적 범위를 넘어선 체험을 가져다준다.

벤야민은 이러한 충격 체험을 환각, 꿈의 체험에 ㉢ 빗대어 '시각적 무의식'이라고 불렀다.

관객은 영화가 제공하는 시각적 무의식을 체험함으로써 일상적 공간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영화관에 모인 관객은 이런 체험을 집단적으로 공유하면서 동시에 개인적인 꿈의 세계를 향유한다.

#5문단

근대 도시와 영화의 체험에 대한 벤야민의 견해는 생산학 파와 소비학파를 포괄할 수 있는 이론적 단초를 제공한다.

벤야민은 근대 도시인이 사물화된 노동자이지만 그 자체로 내면세계를 지닌 꿈꾸는 자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벤야민이 말한 근대 도시는 착취의 사물 세계와 꿈의 주체 세계가 교차하는 복합 공간이다.

이렇게 벤야민의 견해는 근대 도시에 대한 일면적인 시선을 ㉣ 바로잡는 데 도움을 준다.

33.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근대 도시의 삶의 양식에 대한 벤야민의 주장을 기준으로, 근대 도시의 산물인 영화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있다.
- ② 근대 도시와 영화의 개념을 정의한 후, 근대 도시의 복합적 특성을 밝힌 벤야민의 견해에 대해 그 의의와 한계를 평가하고 있다.
- ③ 근대 도시의 삶의 양식에 대한 벤야민의 관점을 활용하여, 근대 도시의 기원과 영화의 탄생 간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있다.
- ④ 근대 도시의 복합적 특성에 따른 영화의 변화 양상을 통시적으로 살펴본 후, 근대 도시와 영화의 체험에 대한 벤야민의 주장을 비판하고 있다.
- ⑤ 근대 도시의 삶의 양식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소개한 후, 근대 도시와 영화에 대한 벤야민의 견해가 근대 도시의 복합적 특성을 드러냄을 밝히고 있다.

34.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근대 도시를 근대 도시인이 지닌 환상에 의해 작동되는 생산 기계라고 본다.
- ② ㉠은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성립된 근대 생산 체제가 욕망과 충족의 간극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 ③ ㉡은 근대 도시인의 소비 정신이 금융주의 정신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본다.
- ④ ㉡은 근대 도시인이 사물로 전락한 대상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진 존재라고 본다.
- ⑤ ㉠과 ㉡은 모두 소비가 노동자에 대한 집단 규율을 완화하여 유순한 몸을 만든다고 본다.

3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관객에게 새로운 감성과 감각을 불러일으킨다.
- ② 영화가 다루고 있는 독특한 주제에서 발생한다.
- ③ 근대 도시의 일상 체험에서 유발되는 충격과 유사하다.
- ④ 촬영 기법이나 편집 등 영화의 형식적 요소에 의해 관객에게 유발된다.
- ⑤ 육안으로 지각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영화적 체험으로부터 발생한다.

3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베르토프의 <카메라를 든 사나이>는 1920년대의 근대 도시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다. 베르토프는 다중 화면, 화면 분할 등 다양한 영화 기법을 도입하여 도시의 일상적 공간을 새롭게 재구성하고 있다. 이 영화는 억압의 대상이던 노동자를 생산의 주체이자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으로 묘사한다. 영화인도 노동자 중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베르토프는 영화 속에서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영화를 제작하는 영화인의 모습을 보여 준다. 베르토프는 짧은 이미지들의 빠른 교차를 통해 영화가 편집의 예술임을 확인시켜 준다. 또한 영화관에서 신기한 장면에 즐겁게 반응하는 관객들의 모습을 영화 속에서 보여 줌으로써 영화가 상영되는 과정을 드러낸다.

- ① 베르토프의 영화는 분업화로 인해 영화 제작 과정에서 소외된 영화인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 ② 베르토프의 영화에 등장하는 노동자의 모습은 생산학파가 묘사하는 훈육된 노동자의 모습과는 다르군.
- ③ 베르토프가 다양한 영화 기법을 통해 일상 공간을 재구성한 것은 벤야민이 말하는 시각적 무의식을 유발하겠군.
- ④ 베르토프가 사용한 짧은 이미지들의 빠른 교차는 벤야민이 말하는 예측 불가능한 이미지의 연쇄를 보여 주는군.
- ⑤ 베르토프의 영화에 등장하는 관객의 모습은 영화관에서 신기한 구경거리인 영화를 즐기는 근대 도시인을 보여 주는군.

37. 벤야민이 말한 근대 도시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생산의 공간과 꿈꾸는 공간이 교차하는 공간이다.
- ② 소비 행위가 노동자에게 복합 체험을 가져다주는 공간이다.
- ③ 이질적인 것이 병치되고 뒤섞이며 빠르게 흘러가는 공간이다.
- ④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도입을 통해 노동의 소외가 극복된 공간이다.
- ⑤ 집단 규율을 따라 노동하는 노동자도 내면세계를 가지고 있는 공간이다.

38.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봉합(縫合)하려는
- ② ㉡: 보증(保證)하는
- ③ ㉢: 연상(聯想)하게
- ④ ㉣: 의지(依支)하여
- ⑤ ㉤: 개편(改編)하는

(앞부분 줄거리) 공동 경비 구역에서 근무하는 국군 이수혁 병장, 남성식 일병(수정의 오빠)과 인민군 오경필 중사, 정우진 전사 사이에 충격 사건이 일어난다. 중립국 감독 위원회는 소피 소령을 파견하여 보타 소장 관할 아래 사건을 조사하게 한다.

㉠ **S#79. 팔각정 (낮)**

팔각정에서 본 판문각 근처 부감* 전경 — 대질 심문을 받고 나온 수혁, 경필 일행이 회담장 앞에서 각각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난다. 카메라, 후진하면서 팔각정 내부로 초점 이동하면 보타의 손이 쑥 들어와 서류 봉투를 내민다.

소피 : (영어) (봉투를 받아 들고) 뭐죠?

보타, 대답 대신 관측경을 들여다본다.

보타 : (영어) 한국이 처음이었지?

㉡ 보타의 관측경으로, 판문각 앞에서 쌍안경을 들고 이쪽을 관찰하는 북한 군인이 보인다.

보타 : (영어) (목소리) 그래 ‘아버지’ 나라가 마음에 들던가?

㉢ 판문각 쪽에서 북한 군인의 쌍안경 시점으로, 사진을 보고 있는 소피의 모습이 잡힌다.

보타의 설명 사이사이, 한국전 당시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생활과 좌우 투쟁, 종전 후 공산 포로 복송, 반공 포로 석방 및 제3국행 포로의 출발과 도착 장면들이 사진과 기록 영화 화면으로 편집된다.

보타 : (영어) (목소리) ㉣ 한국전 당시 거제도에는 인민군 포로 수용소가 있었지. 그 속에서 공산주의자와 반공주의자, 두 무리 간엔 처참한 살육이 계속됐어. 종전되고 그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어. 남으로의 귀순이나, 북으로의 귀환이나... 그 17만 포로 중 76명은 둘 다를 거부했어. 그들 중 지금도 행방이 묘연한 사람이 있네. 바로... 자네 아버지 장연우 같은 사람이지.

소피, 놀란 얼굴로 손에 든 다른 사진을 내려다보면 거제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들, 결박당한 채 쪼그리고 앉아 있다. ㉤ 그중 동그라미가 처진 사람 얼굴로 zoom*

보타 : (영어) 표 장군이 매우 썩썩 움직였더군. 국방부, 외무부, 인도, 아르헨티나, 스위스 대사관... 며칠 사이 정보란 정보는 다 모았어. 표 장군으로서 ㉥ 진 인민군 장교의 딸인 자네에게 사건을 말할 수 없었겠지.

소피 : (영어) (흥분해서) 3일이면 돼요. 곧 이 병장의 자백을 받아낼 수 있다가구요.

(중략)

㉦ **S#81. 소피의 숙소 (낮)**

침대에 가방을 올려놓고 짐을 싸는 소피. 사진 액자를 가방에 넣으려다 말고 들여다본다. 어린 시절의 소피와 스위스인 엄마 사진. 액자 뒤를 열어 가족사진을 꺼낸다. 접힌 부분을 펴자 숨

겨진 아버지의 모습이 온전히 나타난다. 물끄러미 사진을 바라보는 소피.

S#82. 수사본부 (낮)

문이 열리고 들어오는 수혁, 목발을 짚었다. 사진을 바라보고 앉아 있는 소피.

소피 : (수혁을 돌아보며) 오라고 해서 미안해요. 몸도 불편한데.

영문을 모르고 불러 온 수혁이 가만히 지켜보는 가운데, 탁자에 놓인 서류 봉투를 집어 들고 출입구 앞으로 가는 소피. 과녁판에서 다트 화살을 뽑아 든 다음 서류 한 장을 훑아 고정시킨다.

소피 : 내일 자정을 기해 나를 제이에스에이 근무에서 해제한다는 명령서예요.

수혁 : 들었습니다. 아버지 얘기.

소피 : 그래, 내가 인민군 장교의 딸이란 애길 듣고 기분이 어땠던가요?

수혁 : (주저 없이) 친근감이 들었습니다.

㉧ 소피, 당황한 듯 잠시 침묵했다가 군복 안에 받쳐 입은 티플렉스 스웨터의 목을 걸쳐 보인다. 목에 나 있는 피멍 자국.

소피 : 난 아직 흔적이 남아 있는데 이 병장은 깨끗하네요. 이 병장이 오 중사보다 힘이 센가 보지요?

당황하는 수혁, 대답 없다.

소피 : 자, 진짜 재미난 쇼는 이제부터예요. 잘 봐요.

수정의 얼굴이 프린트된 출력물을 과녁판에 꽂는 소피. 당황하는 수혁.

소피 : 수정 씨를 만나자마자 전에 본 적이 있는 얼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내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이번에는 수정의 초상화를 과녁판에 꽂는 소피. 놀라는 수혁.

소피 : 정우진이 그린 초상화예요. 그리고 이걸 (찢어져 너털 너털한 얼굴 없는 사진을 과녁에 꽂으며) 정우진의 시신에서 나온 사진이에요.

과녁판에 나란히 부착된 ㉨ 석 장의 이미지. 충격받은 표정의 수혁.

소피 : ‘사라진 탄환’이 남 일병의 알리바이를 깨는 증거였다면... (얼굴이 찢겨 나간 사진을 가리키며) ‘사라진 얼굴’은 네 명의 병사가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다는 걸 뜻하는 증거죠.

수혁, 애써 외면하고 걸어간다.

수혁 : 그래서요?

㉩ 노란색과 빨간색 디스크 두 개를 꺼내 보이는 소피.

소피 :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수사 보고서예요. 내가 뭘 제출하느냐는 이 병장한테 달렸어요. 진실을 말해 준다면 난 후임자에게 어떤 증거나 추리도 제공하지 않겠어요.

수혁 : 협박입니까?

소피 : 거래죠.

수혁 : 영장을 가진 훈장을 받든 전 관심 없습니다. 그렇다면

㉠ 진실의 대가로 소령님이 저한테 해 줄 수 있는 게 뭐니까?

소피 : 이 병장이 끝까지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 오경필의 안전이에요.

- 박상연 원작, 박찬욱 외 각색, 「공동 경비 구역 JSA」 -

* 부감: 카메라가 인물의 시선보다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며 촬영하는 것.

* 줌인: 피사체의 크기를 점점 확대 촬영하는 것.

39.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소피'의 아버지는 전쟁이 끝나자 북으로 귀환한다.
- ② '소피'는 사건의 진실에 대해 조사 의지가 없다.
- ③ '수혁'은 '소피'의 아버지의 전력을 듣고 '소피'를 경계한다.
- ④ '소피'는 '사라진 얼굴'이 누구인지 짐작하지 못한다.
- ⑤ '소피'는 '수혁'이 '오경필'의 안전을 염려한다고 생각한다.

40.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공간 범위는 팔각정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도 포함한다.
- ② ㉡는 '소피'가 직무에서 해제되는 원인이 된다.
- ③ ㉢는 '소피'가 네 병사의 관계를 짐작하게 된 단서이다.
- ④ ㉣는 '수혁'이 진실을 밝히느냐에 따라 어느 것이 제출될지가 정해질 것이다.
- ⑤ ㉤는 '수혁'이 수사본부에 있는 '소피'를 만나러 온 이유이다.

41. 윗글을 영상화한다고 가정할 때, ㉠~㉥에 해당하는 감독의 연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과 ㉡는 각각 관측경과 쌍안경으로 상대측을 바라보는 장면을 설정하여 남북한 대치 국면에 있는 S#79 공간의 특수성을 그려야겠어.
- ② ㉢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는 촬영과 달리 사진이나 기록 영상물을 제시하여 당시 상황을 보여 주어야겠어.
- ③ ㉣는 동그라미 처진 얼굴을 확대 촬영하여 '소피'의 아버지가 포로 중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환기해야겠어.
- ④ ㉤는 대사 없이 인물의 행동과 소품으로 인물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표현해야겠어.
- ⑤ ㉥은 사건의 맥락이 관객에게 인지될 수 있도록 실내 전체를 한 화면에 담아야겠어.

도시의 발전은 옛 성벽을 깨트리고, 아직도 초평(草坪)이 남아 있는 이 성 밖으로 뛰어나오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아직도 자리 잡히지 않은 이 거리의 누렁던 길이 매년과 발걸음에 나날이 짙어서 ㉠ 꺼렇게 명들기 시작한 이 거리를 지나면 얼마 안 가서 옛 성문이 있었다. 그 성문을 통하여 이 신작로의 수직선으로 뚫린 시가가 바라보이는 것이었다. 그 성문 밖을 지나치면 신흥 상공 도시라는 이 도시의 공장 지대에 들어서게 된다. 병일이가 봉직하고 있는 공장도 그곳에 있었다. 병일이는 이 길을 2년간이나 걸었다. 아침에는 집에서 공장으로, 저녁에는 공장에서 집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므로 이 길을 걷는 것이었다.

병일이는 취직한 지 2년이 되도록 신원 보증인을 얻지 못하였다. 매일 저녁마다 병일이가 장부의 시계(時在)를 막아 놓으면, 주인은 금고의 현금을 해었다. 병일이가 장부에 적어 놓은 숫자와 주인이 해인 현금이 맞아야떨어진 후에야 그날 하루의 일이 끝나는 것이었다. 주인이 금고 문을 잠근 후에 병일이는 모자를 집어 들고 사무실 문밖에 나선다. 한 걸음 앞서 나섰던 주인은 곧 사무실 문을 잠가 버리는 것이었다. 사무실 마루를 쓸고, 흙치고, 손님에게 차와 점심 그릇을 나르고, 수십 장의 편지를 쓰고, 장부를 정리하는 등 ㉡ 소사와 급사와 서사의 일을 한 몸으로 치르고 난 뒤에 하숙으로 돌아가는 병일의 다리와 머리는 물병과 같이 무거웠다.

주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공장 문밖을 나서면 하루의 고역에서 벗어났다는 시원한 느낌보다도 작은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 아래 말할 수 없이 호젓해짐을 금할 수 없었다. 그는 주인 앞에서 참고 있었던 담배를 가슴 속 깊이 뺏아 들이켜며, ㉢ 2년 내로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신원 보증인을 다시금 궁리하여 보는 것이었다. 현금에 손을 대지 못하고, 금고에 들어 있는 서류에 참견을 못 하는 것이 책임 문제로 보아서 무한히 간편한 것이지만 ㉣ 취직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변함없이 자기를 감시하는 주인의 꾸준한 태도에 병일에도 꾸준히 불쾌한 감을 느껴온 것이었다. 주인의 이러한 감시에 처음 얼마 동안은 신원 보증이 없어서 그같이 못 미더운 자기를 그래도 써 주는 주인의 호의를 한없이 감사하고 미안하게 여겼다. 그다음 얼마 동안은 병일이가 스스로 믿고 사는 자기의 담박한 성정을 그리도 못 미더워하는 주인의 태도에 원망과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

(중략)

근자에 병일이는 사무실에서 장부 정리를 할 때에도 혹시 후원에서 성낸 소와 같이 거닐고 있던 니체가 푸른 이끼 돋친 바위를 붙안고 이마를 부딪치는 것을 상상하고 작은 신음 소리가 나오려는 것을 깨닫고는 몸서리를 치기도 하였다. 그럴 때마다 곁에서 담배를 피우며 신문을 뒤적이고 있는 주인을 바라볼 때 ㉤ 신문 외에는 활자와 인연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의 생활이 부럽도록 경쾌한 것 같았다. 사실 ㉥ 월급에서 하숙비를 제하고 몇 푼 안 남는 돈으로 탐내어 사들인 책들이 요즈음에는 무거운 짐같이 거뒀다. 활자로 박힌 말의 퇴적이 발호하여서 풍겨 오는 문학의 자극에 자기의 신경은 확실히 피곤하여졌다고 병일은 생각하였다.

피곤한 병일이는 사무실에서 돌아올 때마다 이 지루한 ㉦ 장마는 언제까지나 계속할 셈인가고 중얼거렸다. 지금부터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돌아가는 길에 언제나 발을 멈추고 바라보는 성문을 요즈음에는 우산 속에 숨어서

그저 지나치는 때가 많았다. 혹시 생각나서 돌아볼 때에는 수없는 빗발에 씻기며 서 있는 ㉧ 누각을 박쥐조차 나들지 않았다. 전날 큰 구렁이가 기왓장을 떨어쳤다는 말이 병일에게는 육친의 시체를 보는 듯한 침울한 인상을 주는 것이었다. 모기 소리와 빈대 냄새와 만들거리다가 새침히 뛰어오르는 벼룩이가 기다릴 뿐인 바람 한 점 없는 ㉨ 하숙방에서 활자로 시꺼멓게 메워진 책과 마주 앉을 용기가 없어진 병일이는 어떤 유혹에 끌리듯이 ㉩ 사진 ㉪ 권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사진사도 병일이를 환영하였다. 그리고 거기는 술과 한담이 있었다. 아직껏 취흥을 향락해 본 경험이 없던 병일이는 자기도 적지 않게 마시고 제법 사진사와 같이 한담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이 만족하게 생각되기도 하였다. 사진사가 수다스럽게 주위섬기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에 병일이는 ㉫ 문득 자기를 기다릴 듯한 어젯밤 피눈은 대로 있을 책을 생각하고 시계를 쳐다보기도 하였으나 문밖에 빗소리를 듣고는 누구에 대한 것인지도 모른 송구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이야기에 신이 나서 잊고 있는 사진사의 잔을 집어서 거꾸 마셨다.

밤 12시가 거진 되어서 하숙으로 돌아가는 병일이는 비를 맞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하였다. '이것이 무슨 것이냐!' 하는 반응은 갈라진 검은 구름 밖으로 보이는 별 밑에 한층 더하므로 '이 생활은 일시적이다. 장마의 탓이다.' 하는 생각을 오는 비에 핑계하기가 편하였던 것이다. 책상 앞에 돌아온 병일이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모두 없어진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었다. 이른 아침 시간을 위하여 자야 할 병일이는 벌써 깊이 잠들었을 사진사의 ㉬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잠이 오지 않았다.

- 최명익, 「비 오는 길」 -

4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풍자적 어조를 통해 세태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 ② 상황에 대한 인물의 주관적인 판단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 ③ 인물의 과장된 말과 행동을 통해서 비극적인 분위기에 반전을 피하고 있다.
- ④ 자연에 대한 감각적인 묘사를 중심으로 환상적인 분위기를 그려내고 있다.
- ⑤ 빈번하게 장면을 전환하여 인물들 사이에 조성된 긴장감을 해소하고 있다.

4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변화하고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하고 있다.
- ② ㉡는 '병일'이 '사무실'에서 하는 반복적인 일이다.
- ③ ㉢는 피곤한 '병일'에게 지루함을 더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 ④ ㉣는 노동에서 벗어난 '병일'이 '나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 ⑤ ㉤는 '병일'의 휴식을 방해하는 상상의 소리이다.

44. <보기>를 참고하여 ㉠~㉣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소망이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해서 갈등을 겪는 개인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빠진다. 특히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처지에 놓여 있는 개인은 긴장과 갈등 상황에 과민하게 반응하며 현실에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 과정에서 불쾌감, 고독, 우울, 불면 같은 심리적 불안 증세가 표출된다. 이 같은 증세를 보이는 개인은 불안을 야기하는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자기만의 세계에 몰두하려고 한다. 그렇다고 자기만의 세계에 만족하는 것은 아니며 타인의 삶에 대한 관심과 실망을 오가는 이중적 감정을 드러낸다.

- ① ㉠은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처지에 놓여 있는 '병일'의 상태를 보여 주는군.
- ② ㉡은 자신이 의심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병일'의 심리적 불안이 드러난 예이군.
- ③ ㉢에서는 자신의 세계에 만족하지 못하는 '병일'이 타인의 세속적 삶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에서는 자신이 몰두하던 세계에서 '병일'이 더 이상 만족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에서는 '병일'이 타인의 삶에 대한 관심과 실망을 오가고 있음을 알 수 있군.

45. 하숙방과 사진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하숙방은 '병일'이 자신을 대면하는 고독한 곳이고, 사진관은 삶에 지친 '병일'이 일시적으로 도피하는 곳이다.
- ② 하숙방은 '병일'이 '니체'에 관한 상상을 하였던 곳이고, 사진관은 '사진사'에 대한 '병일'의 동정이 드러나는 곳이다.
- ③ 하숙방은 '병일'이 자신의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곳이고, 사진관은 '병일'에게 위안을 주는 곳이다.
- ④ 하숙방은 '주인'의 감시가 계속되는 곳이고, 사진관은 '병일'이 이전에 해 보지 못한 경험을 하는 곳이다.
- ⑤ 하숙방은 '병일'이 '고역'을 지속하는 곳이고, 사진관은 '병일'이 자신의 과거를 긍정하는 곳이다.